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성 은 영 권 지 은 황 순 택[†]

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한국인 시어머니가 고부갈등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7명의 한국인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Colaizzi, 1978)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고부갈등 문제로 8개의 범주와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8개의 범주는 각각 ‘어긋난 기대’, ‘도주 불안’, ‘경제 문제’, ‘상전 모시기’, ‘병어리 냉가슴앓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중간역할의 어려움’, ‘불쌍한 내 인생’으로 명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의 도주에 대한 불안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가 한국인 시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은 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심리적 위축과 심리적 부담감을 더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은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더 노출되기 쉬우며 그 수준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가정, 한국인 시어머니, 고부갈등, 농촌지역, 질적 연구

[†] 교신저자 :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Fax : 043-271-1713, E-mail: hstpsy@chungbuk.ac.kr

한국사회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9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전체 결혼건수 대비 13.5%(42,356)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는 있으나, 2010년도에는 10.5%(34,235)로 여전히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율은 76.7%를 차지하며, 한국 남성의 직종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33.8%(2,023)이다(통계청, 2010). 이와 더불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은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비율이 읍·면 지역의 경우 41.3%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28.3%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여전히 대가족의 형태를 띤 가족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유가효(1976)는 고부갈등의 정도는 시어머니와 동거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며, 거주단위를 따로 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가족의 형태는 고부갈등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부관계문제는 한국 가족 내에서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로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 가정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외국인 며느리를 둔 한국인 시어머니에게도 새로운 관계성의 구축, 낯선 문화의 흡수와 통합 등의 과제가 추가로 요구된다. 더욱이 농촌지

역의 경우 상담기관의 부족,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그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가진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한국인 시어머니들은 스트레스가 있다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들은 다문화가정 내에서 고부관계문제를 쉽게 유발시키며, 그 수준 또한 심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체계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른 가족원 간의 불화 등은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다(최규련, 1995). 김태연(1995)은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관계 갈등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고부관계 불만족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로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고부관계 문제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 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여성가족부, 2005).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관계 문제는 비단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고부관계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특히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갈등의 원인제공자로 비추어져 왔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시어머니가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 생활적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홍달아기, 채옥희, 2006).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고부관계에 있어 이원적인 모습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서의 고부관계는 농

촌의 특성상 하루 종일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지내는 며느리인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결혼이민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시어머니를 포함한 한국인 가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며느리를 둔 한국인 시어머니에 관한 연구는 복지학 분야에서 소수 있었으나 한국인 시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실태 및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김미자, 2011; 윤명숙, 이해경, 2010; 이해경, 2009; 이해정, 2007; 조한숙, 2009). 이와 같이, 현재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주관적 경험내용을 이해하고자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그들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고자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며느리를 둔 특히 고부갈등 관계에서 한국인 시어머니의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 구조를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개인들이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즉 개인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Colaizzi, 1978)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관계에서 어떠한 주관적인 경험을 하며 그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방 법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및 목적에 가장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시어머니이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현재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넷째, 면담과정에서 정신과적 병력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으며 치매 및 노화와 관련된 병력이 의심될 만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충청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8명을 소개를 받았으며, 연구 목적을 사전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 확인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 작업에도 불구하고, 1명은 면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최종 7명을 사용하였다. 이후, 참여자에 따라 1회-3회(회기 당 90분)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5.7세이고,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로 낮다. 참여자 스스로 평가한 경제적 수준은 중(하) 6명, 하 1명이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 3명, 보통 1명, 나쁨 3명이다. 며느리와의 체류기간은 0-2년이 4명, 2-3년이 1명, 3-4년이 2명이다. 아들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2012년 4월 현재)

	A	B	C	D	E	F	G	
시어머니	연령	61	62	71	66	69	65	66
	학력	초중퇴	초중퇴	무학	초졸	초졸	초졸	초졸
	종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주관적 경제수준	중	중하	하	중하	중	중	중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나쁨	나쁨	양호	보통	양호	양호
	배우자 유무	○	○	×	○	○	○	○
며느리	나이	28	25	24	23	34	26	23
	국적	캄보디아	캄보디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체류(동거)기간	37개월	60개월	16개월	16개월	4개월	22개월	34개월
	의사소통수준	상	중	하	중	하	상	상
	자녀수	2(친자1)	1	1	0	임신중	1	2
아들	나이	36	39	45	38	40	41	42
	직업	생산직	부모 자영업보조	생산직	물류회사	숙련직	자영업	생산직
그 외	결혼경로	어머니 권유	결혼중개 업소회유	어머니 권유	어머니 권유	어머니 권유	아들 의지	아들 의지
	결혼상태 (며느리/아들)	초혼/ 재혼	초혼/ 초혼	초혼/ 초혼	초혼/ 초혼	재혼/ 초혼	초혼/ 재혼	초혼/ 초혼

의 평균 연령은 35.8세이며, 며느리의 평균 연령은 26.1세로 연령차는 9.7세이다. 며느리의 국적은 베트남 3명, 캄보디아 3명, 필리핀 1명이다. 자세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 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및 철회권리의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한 후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또한 면접내용의 필사본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그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리고 면접내용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였으며, 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 더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센터 내의 실태조사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심층면접은 임상 및 상담 전공자로서 상담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따라 개인별로 1회-3회 실시하였으며, 회기

당 면접시간은 90분이었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지리적 여건 및 연령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면접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개인적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회기별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접은 개방적이며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를 사용하였다. 이때 면접자는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자어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1차 면접에서는 라포 형성을 위해 면접지를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3차 면접에서는 주로 며느리와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며느리와 생활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며느리와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등이었다.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음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지 이외에 필사한 면접내용은 A4용지로 158장 분량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콜라찌(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의 6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들 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에서의 경험내용과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 후 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

택하여 총 21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로 바꾸어 167개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 묶음(theme cluster)으로 분류하여 총 17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하였다. 5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주제와, 주제묶음에 따라 경험의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주제들을 통합하여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를 기술하였다.

Creswell과 Miller(2000)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9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9개의 전략 중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researcher reflexivity)과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수행하였으며, 동료 검토를 통해 평정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구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신념을 괄호치기 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의 가정, 신념, 편견을 통제하려고 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으며, 자료 분석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메모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두 번째로, 참여자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reswell(2010)은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전략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 추가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 과정 생 1명을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며, 또한 도출된 의미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임상심리전문가인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교수 1명에게 전체 분석에 대해 검토 받았다.

인 며느리를 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으로서 총 8개의 범주와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도출된 8개의 범주는 ‘어긋난 기대’, ‘도주 불안’, ‘경제 문제’, ‘상전 모시기’, ‘병어리 냉가슴앓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중간역할의 어려움’, ‘불쌍한 내 인생’이다.

결 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어긋난 기대

참여자들은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애타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아들의 결혼을 추진하고 성사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표 2. 외국인 며느리를 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내용

범주	주제
어긋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또는 텔레비전의 외국인 며느리와 다름 •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온 며느리 •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배신감이 느껴짐
도주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며느리에 관한 무성함 소문들 •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끝까지 살아줄지 걱정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하게 살아주었으면 함 • 친정 지원의 힘겨움
상전 모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지 않음 •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음
병어리 냉가슴앓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음 • 인내의 연속
사회적 편견과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적인 며느리 편들기- ‘잘 해줘라’ 증후군 • 우리 집을 향한 달갑지 않은 시선집중
중간역할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품어야 함 •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함
불쌍한 내 인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심히 살아 온 대가도 없는 내 인생 • 불쌍하고 처량한 내 인생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며느리를 보게 됨으로써,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실망감과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또는 텔레비전의 외국인 며느리와 다름

참여자들은 아들의 국제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자들의 고민은 주위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가정들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정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은 참여자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 애 보면 또 부모도 잘 모시고 착하게 살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진짜 원해서 했거든. 근데 그게 오산이더라고 그게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고...” (사례 A)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여간 잘 살아?! (근처) 저기 아가씨도 둘 낳고 아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그냥 애기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애기보라고 하고서 풀을 막 뜯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해...그래서 ‘아, 저러면 괜찮겠다!’ 그래서 장가를 들은 거 아녀...” (사례 C)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온 며느리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추진함에 있어 아들의 상태나 가정 형편 등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했으며, 그러한 사실을 며느리가 알고 결혼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

자들은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 배신감을 느끼며,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내 생각과 정반대인거여! 나도 한편에서는 실망도 컸고...좌절감도 있었고...” (중략) “많이 이번에 엄청히 내가 믿었는데...엄청히 내가 진짜 상처 입고...실망이 진짜...우리는 속인 것도 한 가지도 없고! 있는 그대로 아들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보여주고 한거지...우린 속인 거 절대 없다구...근데 나는 이쪽에다가 진짜 받은 속았다는거를...” (중략) “그 처음에는 원래가 시부모하고 평생 살 것 마냥 이려고 왔단 말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배신감이 드는 거야! 아니 이랬었는데...왜 이랬을까! 왜 또 그런 맘을 먹고 집안에 자꾸만 분란을 내고 이렇게 저기하고 살기 싫어하고 나가고!” (사례 A)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배신감이 느껴짐

참여자들은 먼 타국에서 온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겨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며느리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전폭적인 지원을 자처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참여자들의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든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까봐 진짜 뭐 어디 간다는 거는 내가 안 나가도 시간을 다 해서래두 데리고 갈 때 다 가고...진짜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중략) “그 먼데

서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잘해줘야지! 더 해 주어야지! 막 이것도 저것도 어려움 없이 해주어야지! 그래서 진짜 내가 정성 많이 들이고 진짜 발끝까지...뭐 하나에서 열까지...근데 누가 저렇게 속을 썩을 줄이야...” (사례 A)

“나도 우리 며느리니까 저는 딸보다 더 이뻐요 솔직히...왜냐하면 들어와서 우리 아들하고 사니까 우리 집 재산이잖아 말하자면...이쁜데...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더 이뻐할 것 같애. 더 이뻐할 것 같고 뭐 줘도 안 아까울 것 같고...우리 딸보다 더 이뻐요 진짜! 우리 딸은 보냈잖아 남의 집에...남의 식구한테...우리 며느리가 더 딸보다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그런 맘이 들어요 항상 이쁘고...근데 잘할 때는 이쁜데 이렇게 말할 때(다른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말함)가 너무 속상해요...” (사례 B)

도주 불안

참여자들은 들려오는 ‘도망가는 며느리’에 관한 무성한 소문에 예기불안을 끌어안고 있었다. 또한 도주 불안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며느리가 아들과 살아줄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며느리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

참여자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에 혹여 우리 며느리도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항상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를 둘러싼 소문들은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며, 참여자들이 며느

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 눈에 맞아서 나갈까? 그런 인식 안하고 살 수 없잖아요...왜냐면 누구네는 며느리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사는데 나갔더라...바람나서 나갔더라...막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내보내기도 걱정이고 집에 있다고 해서 돌아다니는데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녀 산 짐승을...그런 게 걱정인거야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 (중략) “그럼 또 그 원망은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결혼 시켰는데)...(만약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인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어서도 그 원망이야!” (사례 D)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룬이...뭐, 얘기들 막 이쁘도 또 뭐 틀리면...또 가버린다고(며느리 나라) 그러니까...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다문화 센터)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꼭 쫓아다니네.” (사례 E)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끝까지 살아줄지 걱정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한 아들에 비해 똑똑한 며느리가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도 끝까지 살아줄지 염려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직 며느리에 대한 신뢰감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유에는 ‘도망가는 며느리’에 대한 소문들과 실제적인 며느리와의 갈등이 상호작용하여 참여자들의 불안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때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이

용해 먹고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 생각 들어가요. 그게 걱정이야...우리 아들이 너무 모르고 착하니까...그게 걱정여...(며느리는) 너무 영리하고 너무 똑똑한데...” (중략) “안 산다고 몇 번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우리 며느리가 잘 하고 살아야 하는디 걱정이야...우리 며느리가 참 살아줬으면 끝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는디...그렇게 할라나...걱정여...나중이 걱정스러워...나중이 걱정스러워 ...” (사례 B)

말고 한 푼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오고 차라리 나는 그런 마음인데...” (사례 A)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 배추같은 것도 밭에다 그득 심어놨잖아! 가 사와! 가 사다 먹더라구...그래서 왜 사왔어 하면 없어서 사왔대!” (중략)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돈 쪼여서 죽겠고 나는 병원도 한 번도 여쭙다 가고...그렇게 살고...” (사례 C)

경제 문제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아주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또한 며느리 친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아들의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며느리 친정에의 재정적인 지원은 커다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하게 살아주었으면 함

참여자들은 나이 어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며느리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아주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며느리가 가족의 문제에서 주변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가족 문제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느리가) 부츠하고 구두하고 막 사가지고 왔어 돈 써서...입고 싶은 거 다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발에 옷에 그러지

친정 지원의 힘겨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액수나마 며느리 친정에 송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계속되는 며느리 친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힘겨워한다.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룬 만큼 먼저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친정에 돈 달라고 하는게 너무 힘들어...돈을 내가 많이 해줬어! 해줬는디두 뭐한다고 뭐 한다고...며칠 전에 몇 백을 달라고 하더라구...주방을 뭐 고친다고...” (중략) “자기 말 한마디면 나온다 돈이 (헛웃음) 나한테...인제 안 산다고 하면 돈이 나온다는 이거여...못 들은 척 했어.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면 나 때문에 안 산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나 원망 듣잖아...” (사례 B)

상전 모시기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기본적인 가사 일 등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아랫사람으로서 웃어른을 예우할 줄 모르는 며느리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사회를 살아온 참여자들은 ‘가정주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리고 ‘아랫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기를 소망하였다.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지 않음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집안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주초기에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에 조금씩 불만의 감정을 갖게 된다.

“기본으로 기본자세가 돼있어야 하는데...밥 먹으면 밥그릇도 안 주워 나르고 그냥 놔두고 들어가...설거지 한 번을 할라고 하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시키기 싫은 게 그냥 내가 다 해요. 청소도 내가 다하고...” (사례 B)

“배울라고도 안 하고 아침도 저렇게 안 일어나고 11시에 먹고...점심은 4시에 먹고 저녁도 11시나 10시에 먹어...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지 빨래만 열심히 돌려서 빨고 널고, 빨래도 지 빨래만 걸어 가!” (사례 C)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음

참여자들은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에 대한 불만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은 참여자들의 눈

에는 ‘참여자들의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수치심을 크게 자극시켜 자칫 고부간에 감정적인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꼭 ‘다다다’하고 ‘뭐 뭐 어쩐어! 뭐 어쩐어!’ 막 하고 본국말로 또 욕하고...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분통이 터져!” (사례 A)

“(장사를 해야 하는데 목욕탕을 따로 간 며느리가 연락도 안 되고 늦게 와서 소리를 지름) 내가 원체 여기 가자고 했더니 거기 가서 안 왔다고 막 내가 소리를 나도 모르게 뺨 질렀어! 그랬더니 안 산대! 나 보고 빌으랴 소리질렀으니...보따리를 다 싸고 간다! 근디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 나 때문에 못 살것다고 하면 안 되잖아. 나보고 빌으랴 (기막힌 표정) 내가 꼭 빌어야 하나? 내가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께 무릎 꿇고...(한숨).” (중략) “우리나라는 어디 시어머니한테 빌으라고 하는게 어딴어요! 시어머니한테 빌으라고 하는게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진짜 자존심...내가 자존심 상하고...(목소리 떨림).” (사례 B)

병어리 냉가슴앓이

참여자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상담기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조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끌어안은 채 혼자서만 가슴앓이 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들결혼이 자신으로 인해 파탄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인내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극적

인 대처방식은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말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음

참여자들은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등의 제약으로 인해 가족이나 종교단체 등에 호소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주로 혼자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혼자 속으로 삭히기’ 식의 매우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나갔다 오면서 애(전처소생 손자)하고 나하고 죽을까? 손자하고 나하고 죽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울먹임). 내가 죽을까...내가...애하고 나하고만 내가 시어머니가 화근이라면 애하고 나하고 죽으면은...될 거 아니요(목메어 울음). 우리 남편도 그래 봐야 통하지가 않고...” (중략)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한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혼자 내 가슴만...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지...” (중략) “(교회) 가서 내가 힘들어서 이려고 싶어도 그러면 또 왜 뭐 저기 하는가 남이 말하기 좋게 그래서...못해요. 내가 말을...(할 곳이)없어요...기댈 데가...” (사례 A)

“나 혼자 참어...어디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몇 날 몇 일을 울었으면 풀려질 것 같애...산 속에 아무도 없는데 가

서...그러면 무서워서 또 못할 것 같애 혼자 가면...산 속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실컷 울었으면...너무 억울해...” (중략) “어떤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 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 여기서 뛰어내리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뛰어내리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은 생각 들어...그래서 높은 곳에 못 가...진짜로 뛰어 내릴 것 같아서...(울먹임).” (사례 B)

인내의 연속

참여자들은 부족한 아들을 가진 죄 때문에 혹은 아들의 행복을 빼는 주범이 될까봐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계속되는 갈등상황은 참여자들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며 그들의 정신건강 또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아들하고 또 그렇게 아팠(첫 결혼의 실패)을 겪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그렇게 만들었는데(울먹)...지금 또 그렇게 하면 남이 또 뭘 어떻게 보겠어요...또...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살아야 할 거 아냐...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하고 참고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중략)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 (사례 A)

사회적 편견과 차별

참여자들은 외국인 며느리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국인으로부터 한국인 시어머니와 남편만이 문제라고 보는 그릇된 시선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주위의 과도한 시선이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며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며느리 편들기- ‘잘 해줘라’ 증후군

참여자들은 며느리와 문제가 있을 때 주위의 무조건적인 며느리 편들기에 부당함을 느끼며, ‘잘해줘라’라는 말만 하는 주위 사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역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위사람들은 그런 참여자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참여자들은 주위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철수시킨다.

“무조건 대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왜 몰라...뜻을 왜 몰라! 그게 환장 하는겨! 제 삼자(결혼중개업소 사장)...꺼떡하면 며느리를 델고 간대!” (중략) “잘해줘라 잘해줘라(모든 사람들) 그것만 하잖아!” (중략) “(외부 행사에서 며느리가 약한 아이를 더운 곳에 홀로 방치, 손자는 고열로 병원 치료를 받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며느리가 울음)나 저기한거 아닌데 나만 나쁜 사람이 되버린겨여! 왜 우냐고 막 해면서 거기서들 막 이려고 있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겨여! 나 아무 저기를 안 했는데...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생각을 해봐요...난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아도 난 내 자식을 위해서 한 번 그랬으니까 두 번은 이리저

않을라고 노력하고 있는데...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거야!” (사례 A)

우리 집을 향한 달갑지 않은 시선집중

참여자들은 주위로부터 아들의 동남아 출신의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말이 오가는 것이 괴로우며, 주위의 과도한 관심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주위의 과도한 관심은 지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외국 며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게 있어. ‘왜 외국며느리를 얻었어? 아들이 이렇게 잘 생기고 그러는디 뭐라고 외국며느리 얻었어?’ 그런게 있어...외국 며느리를 얻으면 뭐가 저기 해서 얻었겠지! 이렇게 인식을 해! 한국 사람들이...기분 나쁘더라고!” (중략) “외국사람 데려다가 살면 돈 얼마씩 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러줄게 들어봐요. 외국사람 며느리 얻으면 꼭 돈을 달라고 해서 다달이 돈을 보내주야 되요! 안 보내주면 꼭 파탄나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알아서 주야되요...그건 명심하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한숨).” (사례 B)

중간역할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혹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지 못하며, 중간적 위치에서 다른 가족들의 고통까지 풀어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품어야 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보다는 아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자들의 중간에서의 중재적 역할은 비록 그들의 심적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가족의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들이 며느리의 과거(며느리가 결혼한 적이 두 번 있는 사실을 숨김)를 알고 혼자 속을 썩고 있는데...회사 갔다 오더니 혼자 주방에서 소주를 한잔 먹더니 ‘엄마 어떡해 어떡해...아후, 이걸 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나...’ 아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략) “지금 니가 개를 보내면 너 이제까지 받은 상처보다 더 마음이 아플거다 그러니까 니 가슴에 묻고 그냥 살자 그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랑 나랑...이렇게 하고 사는거예요.” (사례 E)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불만 등을 느낄 때)우리 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구 뉘뉘요’ (라고 해). 어쨌던 일 못해서 못 살던 앓고 뭐 저기해도 건강하고 저 애들 잘 키워서 건강하게 애들 잘 가리켜서 지들 잘 살고 앞길이 열리게끔 해나가는게 그게 목적이니까...” (사례 F)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함

참여자들은 다른 가족들(특히, 다른 며느리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며 죄스럽다. 참여자들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다른 가족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람들은 임신을 하면 3개월 때는 꼼짝을 안하고 있는 문화가 그렇대요. 나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작은 며느리도 애를 넷씩이나 낳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하다’는 거여 작은 며느리가...그러니까 나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사례 E)

“촌수로 따져서 나이는 막내 며느리가 더 많지만, 촌수로 따지면 아래 동서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죄가 많다고 막내 며느리를 붙잡고 미안해서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사례 G)

불쌍한 내 인생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이기도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 여성’이기도 하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참여자들 개인의 인생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며,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스럽고 억울함

참여자들은 그동안 평탄하지 않았던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살아온 세월들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참여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살았나! 허송세월로 살은 거 그것이 제일 후회…뭘 시집 잘못 와서 그런 건 내 팔자구…” (중략) “남 살을 때 남같이 못 살구…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게 좀 억울하지…” (중략) “누가 나한 달만 데려다 호강시켜주고 죽이면 좋겠다구…그래야 원이 없게…원이나 없게…고상(고생)하느니 너무 질려서…” (사례 C)

열심히 살아 온 대가도 없는 내 인생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 온 대가도 없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연민을 느끼며 인생 전반에 대해 부정적이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열심히 살았지…쉴 줄도 모르고 놀러갈 줄도 모르고…그렇게 일만하고 살았지! (중략)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몸 아끼고 좀 살았어야 하느니 너무 몸을…지한몸…너무 힘들게 살아서 몸을 안 아껴…먹지도 않고 살은게 인저 후회스러운거지…” (사례 B)

“(남편과 일찍 사별 후) 그렇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육뻐지…맨날 남의 집으로 남의 집으로 돌아댁기며 벌어서 키웠지…근디 끝이두 이러네…” (사례 C)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시어머니를 대

상으로 고부갈등 관계에서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와의 갈등관계에서 경험하는 내용으로 8개의 범주와 1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8개의 범주는 각각 ‘어긋난 기대’, ‘도주 불안’, ‘경제 문제’, ‘상전 모시기’, ‘병어리 냉가슴앓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중간역할의 어려움’, ‘불쌍한 내 인생’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첫 번째 범주 ‘어긋난 기대’는 참여자들이 아들의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와 국제결혼 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대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참여자들은 아들의 결혼에 있어 국제결혼에 대해 좋은 점만을 취하는 ‘선택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특히 참여자들의 ‘외국 며느리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일 것이다’ 또는 ‘외국며느리는 일을 잘 할 것이다’와 같은 자기 암시적 사고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자기 암시적 사고는 참여자들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은숙(2009)은 다문화가정의 고부갈등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기대치의 불일치’ 범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인 며느리처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그 맥락이 전혀 다르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인 며느리처럼 해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차이 또한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긋난 기대’의 또 다른 문제로, 참여자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참여자들은

며느리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며느리에게 온정적이며 관대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는 윤명숙과 이해경(2010)이 언급한 것처럼, 농촌사회의 특징인 ‘정’과 ‘연민’의 정서로 농촌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각자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두 번째 범주 ‘도주 불안’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도망가는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윤명숙, 이해경, 2010)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연기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2008)에 의하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로 ‘배우자나 가족의 허락(9.0%)’을 꼽았으며, 황성균의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김은숙(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6.9%)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주위의 소문 등을 통해 도망가는 며느리에 대한 예기불안을 느끼며, 며느리가 외부 세계와 자주 접촉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향된 정보는 한국인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할지 혼란스럽게 만들며, 또한 며느리의 한국적응을 방해하거나 심한 간섭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된 정보와 함께, ‘도주 불안’의 기저에는 참여자들의 ‘부족한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똑똑한 며느리’에서 오는 불안감, 즉 며느리가 똑똑해서(혹은 똑똑해져) 아들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도주 불안’은 며느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고부관계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 ‘경제 문제’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참여자들의 자기 보고한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하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계속하며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소비적 행동과 친정에의 지원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며느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내적 불안을 강화시킨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살림의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이민 여성의 가족갈등을 조사한 한건수(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은 모든 경제권을 시어머니나 남편이 관할하는 점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측입장의 차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네 번째 범주 ‘상전 모시기’는 가사 일과 같은 가정주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자신들을 ‘웃어른으로서 혹은 시어머니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지녀왔으며,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며느리를 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며느리에게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의 경우, 외국인 며느리는 ‘가르치고 보살주어야 하는’ 특별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의 노년은 설 틈 없이 바쁘며 고단하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를 무조건 요구하기 보다는, 기

본적인 가사 일과 같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이행(정순돌, 이현주, 2010)과 웃어른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 및 한국 특유의 ‘고맥락 문화’(유명기, 1997)에 따른 영향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다섯 번째 범주 ‘병어리 냉가슴앓이’는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 동시에 그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초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거주자로서 사회적 제반시설 등의 이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해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혼자서 참아내는 수동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 등(2010)은 수동적 대처방식은 일반적인 한국 시어머니의 대처방식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적절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독감 및 소외감, 그리고 수동적인 문제 해결방식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우울감의 증대와 자살생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신건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범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광영길과 오세연(2010)이 지적하였듯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노총각들이 주변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을 통해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을 겪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편견과 차별문제는 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갈등

상황에서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배우자인 남편만이 ‘나쁘다’고 보는 왜곡된 시선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민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무조건 잘 해줘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참여자들(그 외, 가족 구성원 포함)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즉,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캠페인 속에서도 정작 이들은 소외되며, 더욱이 주위의 차별적 시선에 위축되며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 집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을 동남아 출신 며느리와 결혼시킨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며,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도한 궁금증과 정보의 제공은 따뜻한 이웃의 관심이라기보다는 간섭이며 차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역효과는 폐쇄적 사회인 농촌지역의 특성상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범주 ‘중간역할의 어려움’은 ‘병어리 냉가슴앓이’ 범주와도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이중적인 고뇌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범주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참여자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가족의 화목과 통합을 위해 스스로 중재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덟 번째 범주 ‘불쌍한 내 인생’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져오는 이차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생애주기로 보면 노년기를 살아가는 보통의 ‘노인 여성’이기도 하다. 즉, 이 범주는 일반적인 노인들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참여자들 개인의 인생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며, 그들의 삶의 통합을 방해하고 우울 및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정(2002)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자아통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친밀한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가족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관계에서 탐구하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자아통합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가족관계 내에서의 갈등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삶의 통합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이차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은 고부갈등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본질은 위와 같은 8개의 범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의 도주에 대한 불안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가 경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또한 내국인에 의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예

를 들어 결혼이민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무조건 잘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강요는 한국인 시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주관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며느리와 의 갈등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전반적으로 불안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은 며느리의 도주 문제로, 이것은 다문화가정 내의 고유한 어려움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족한 아들을 가진 죄 때문에 며느리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으로 오히려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을 결혼시킴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뵈므로써 그러한 의무감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를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크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심리적 위축과 부담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하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우울과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노출되기 쉬우며, 그 수준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개입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초졸 이하의 낮은 학력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특히 불안, 분노, 그리고 고독과 소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심리적 갈등이 있어도 적절한 대처 전략을 갖지 못하며 혼자서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사의 부족 등으로 한국인 시어머니에 대한 개입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의 문제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 시어머니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정보에 관한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상담사의 찾아가는 서비스, 즉 아웃리치(outreach)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분노와 고립감,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주위의 무조건적인 며느리 편들기에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스스로를 더욱 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들의 정신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조모임과 같은 그들만의 고통을 나누고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문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다. 이 문제 또한 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포용’으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문화의 공생을 위해 2005년부터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다문화 공생 촉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總務省, 2006).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의식계몽과 함께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촉진시킴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의 정부주도적인 다문화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탐색은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완화를,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수용감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평균 연령이 65.7세로, 노년기를 살아가는 한국인 시어머니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 왔고, 지금 현재도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농사일을 하며 가족에 도움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무엇보다 가족관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친밀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여러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은 다른 어떠한 사회제도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가족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와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주관적 경험내용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농촌지역에서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의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도시를 포함한 폭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갈등수준이 다양한 고부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탐색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각자의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또한 그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점을 두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동거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인 시어머니들은 예

의범절과 같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려움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다. 한편, 며느리와 동거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시어머니들은 심리적인 갈등 문제를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학력, 동거기간, 의사소통 수준 등에 따른 한국인 시어머니들의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공은숙 (2009).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18, 123-134.

곽영길, 오세연 (2010).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17-238.

김미자 (2011). 다문화가족 시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윤정 (2002). 회상을 통한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의 일생과 자아통합감. *한국노인복지연구*, 21, 207-231.

김은숙 (2010). 황성군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태연 (1995).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연기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방안 모색 토론회*.

유가호 (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연구. 13, 69-98.
- 윤명숙, 이해경 (2010).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0(2), 191-232.
- 윤 황 (200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해경 (2009). 외국 며느리를 둔 농촌시어머니의 수용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순돌, 이현주 (2010).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5-36.
- 조한숙 (2009). 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의학회지. 33(6), 99-113.
- 통계청 (2010).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에서 2012, 4, 7 인출.
- 통계청 (2010). 2010년 혼인·이혼통계.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에서 2012, 4, 7 인출.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6(1), 195-2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總務省 (2006). 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研究會報告書: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http://www.soumu.go.jp/kokusai/pdf/sonota_b5.pdf#search에서 2012, 1, 12 인출.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and King, M.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1 차원고접수 : 2012. 7. 27.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Eunyoung Seong

Jieun Kwon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were 7 mother-in-laws who have foreign daughter-in-law in agricultural region.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Colaizzi, 1978). The result proposed 8 categories(failed expectation, anxiety of running away of daughter-in-law, economic problems, serving master, suffering in silenc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difficulties of mediator, and pitiful my life) and 17 themes for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mong them, anxiety of running away of daughter-in-law and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by korean society revealed mother-in-laws are experiencing important factors. Also, they feel high anxiety and tend to experience psychological withdrawal and burden. Because of thes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y are apt to be exposed problems of serious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and suicide thought.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e intervention about mental health for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korean mother-in-law,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ural areas, qualitative research.